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가속화한다!

경영전략 수립 위해 회장 부속실 설치 ... 화학계열사 컨트롤 타워로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그룹 분리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학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장 부속실을 설치했다고 8월31일 발표했다.

회장 부속실은 화학 계열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능 외에 감사, 업무,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장 부속실장은 부장급이 임명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 회장 부속실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본부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규모를 확대해 석유화학 계열사의 독립 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는 별도로 신입사원을 공채했고 2011년에는 화학 계열사까지 독자적인 공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P&B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등 화학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회장 부속실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금호석유화학과 화학 계열사 사이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31>